

완도 어촌마을 '벌금폭탄'... 노인들 어찌나

해경, 굴 껍질 바닷가 투기 '묻지마 적발' 16명에 4950만원 유일한 수입, 관행적 처리에 '날벼락'...생계 막막 대책 호소

조그만 어촌 마을 주민들이 굴 껍질 처리 문제로 5000만원 상당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당장 한 해 소득을 벌금으로 내야할 상황인데, 벌금 부과 대상자 대부분이 가난한 노인들이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굴 껍질 처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정책적 대안도 없이 단속에만 열을 올린 결과 아니냐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령면 화성

리 이심철(61) 어촌계장 등 주민 16명은 지난 5일 열린 김중식 완도군 수와의 간담회에서 "수 십년째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굴 양식을 해온 60~80대 노인들이 굴 껍질 때문에 5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4월 이씨 등 주민 16명은 굴을 수확한 뒤 껍질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완도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투기 민원

과 "바닷가에 쌓여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다칠 위험이 있다"는 관광객 불편 신고에 따른 것이었다.

굴 껍질의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만큼 수확한 뒤 공장으로 보내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후 주민 16명에게 모두 4950만원의 벌금을 벌원에 청구했다. 60~80대 노인들은 1인당 30만~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부분 고령인데다, 양식량도 많지 않은 생계형인 주민들이 많지만 담당 확정되면 '한 해 소득을 초과

한' 벌금을 토해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화성리 주민뿐 아니라 완도지역 고금·약산면 등 굴 양식 어민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처리해오던 터라 대응하지 않게 여겼던 주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현실을 모르는 법 집행이라는 하소연을 도외시했다. 굴 껍질을 분쇄하는 기계를 갖추거나 자부담으로 처리 공장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엔 지역 굴 양식 어민 대부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도,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유독 화성리 주민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댄 완도해경에 대한 섭섭함도 터져 나왔다.

지난해 완도해경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단속 건수는 화성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진정서를 내다 소 경감됐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액수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완도군은 폐쇄기를 구입하거나 적정 처리장을 갖추는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주민들에 대한 2심 재판은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일제 강점기 초등교과서 복원

당시 공립 보통학교 1~6학년 사용한 12권 전남대 김순전 교수팀 '초등국어독본' 발간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김순전 교수팀이 일제의 제3차 조선교육령기 공립 보통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한 일본어 교과서 12권을 묶은 '초등국어독본(초등국어독본·사진)'을 발간했다.

김순전 교수는 일문과 박재홍·장미경·박경수·사회영 등 강사 4명과 함께 최근 초등국어독본 원문서를 복원해 책 3권(상, 중, 하)으로 다시 펴냈다고 밝혔다.

'등국어독본(초등국어독본)'은 국어 교과서라는 특성상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면서도 식민지 체제 하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순전 교수는 "당시 일본어 교육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사상을 접하도록 유도해 말과 역사를 정복하는 동화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포도밭 거름주기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6일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한 포도밭에서 농민들이 거름과 퇴비 등을 섞어주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연 실행될까

정부·여당 추진...난항 예상

정부가 여당이 담뱃값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단행 여부가 주목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르면 7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당 의원 10명이 참여할 개정안엔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82%)으로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223.7%)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담뱃값은 국산 기준 2500원에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발의안은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서민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민 기호품인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실제 인상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5분 해질 18시 33분 달뜨기 03시 16분 달짐 13시 49분

봄비 소식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비 오는 곳 있겠다.

지역	구름양고함때비	기온
광주	구름양고함때비	7/16℃
목포	구름양고함때비	8/15℃
여수	구름양고함때비	7/13℃
나주	구름양고함때비	5/16℃
완도	구름양고함때비	10/15℃
구례	구름양고함때비	5/15℃
강진	구름양고함때비	7/15℃
해남	구름양고함때비	8/15℃
장흥	구름양고함때비	7/15℃
순천	구름양고함때비	4/15℃
영광	구름양고함때비	6/15℃
진도	구름양고함때비	9/15℃
전주	구름양고함때비	8/15℃
군산	구름양고함때비	7/13℃
남원	구름양고함때비	4/14℃
홍산도	구름양고함때비	9/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관심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관심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1.0~2.0m 목포 10:14 02:33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1.5~2.5m 여수 05:50 12:06
17:53 23: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법기상청>

날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5/19	6/21	4/14	3/15	4/16	4/14

광주시청 '계수교차로' 가장 혼잡

출·퇴근시 시내 교통량 조사...1만6572대 통과

광주시내 교차로 중 출·퇴근시 가장 혼잡한 곳은 광주 시청 인근 계수교차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10월 시내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전 출근길 러시아워인 8~9시 교통량은 계수교차로가 1만6572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첨단지구입구사거리 1만2089대, 광천사거리 1만1915대, 동운고가사거리 1만1408대, 백운광장 1만1253대, 운천저수지사거리 1만1248대, 운암사거리 1만612대 순이었다.

오후 퇴근길 러시아워인 6시~7시 교통량은 계수교차로가 1만7582대로 가장 많았고, 광천사거리 1만1778대, 운천저수지사거리 1만1546대, 첨단지구입구사거리 1만1477대, 운암사거리 1만958대, 우석교차로 1만865대, 동운고가사거리 1만611대, 백운광장 1만550대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오전 러시아워에 교통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교차로는 첨단하이마트 사거리로 11.0% 증가했으며, 대인교차로(8.67%), 금남로4가사거리(8.26%) 순이었다.

반면 양산지구사거리는 7.41% 가장 많이 줄었고, 풍금사거리(-2.69%), 대성초교사거리(-2.27%) 순으로 감소했다.

시외 출입교통량은 동림 IC(4257대·4355대), 광산 IC(3878대·3790대), 서광주 IC(3305대·3055대) 순이었다.

동림 IC 교통량은 빛고을로 연장 개통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10% 증가했다.

/박진표기자huck@kwangju.co.kr

관·검사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가능

대법원 최종안 확정

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열 수 있게 됐다.

대신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제8

차 회의에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이 같이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재판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재판을 할 수 없었다.

관·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사전에 반드시 피고인 의견을 듣도록 단서 규정을 붙였다.

/연향스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바다향

☎ 062) 511-2303

A코스 15,000원	C코스 30,000원
B코스 20,000원	스페셜 40,000원

(1인 기준 2인 이상)

정식 동태탕 6,000원 특산매운탕 10,000원 런치정식 15,000원	회덮밥 6,000원 생선초밥 10,000원	쌈밥 7,000원 굴비정식 15,000원
---	----------------------------	---------------------------

위 치: 구.용봉동 엘리시아 사브사브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빔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